

[여성사역자대회] 주님의 마음

[본문] 아 1:1~17 / 2003 / 페이지 수: 2

아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은 이렇게 노골적이고 육체적이며 그 안에 정신을 담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승리를 본받아 평화의 왕으로 돌아온 후에 솔라미 여인과 사랑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의 연애편지를 써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가져야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그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 분과 굉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라미 여인의 경험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생활에서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개인적인 사랑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싸두'라는 사도의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큐티와 기도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는 영적인 교제의 극치입니다. 신자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쟁점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1천5개의 시를 썼는데 그 시중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 아가입니다. 오늘은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 맛있는 포도주보다 키스의 맛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근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음료보다 시원하고 맛있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쏜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너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침궁’은 가장 친밀한 의견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곳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

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러 밀실로 들어가야 하니까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자신의 검은 피부를 어떻게 보여주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검은지라도 아름답다는 치유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절에서 그녀는 포도원에서 일해서 피부가 검게 탔으며 막상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솔로몬은 그녀에게 반했기 때문에 그녀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을 그녀도 하길 권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 하였구나” 침실에서 나와서 그녀를 상 앞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차려진 큰 상 앞에 갔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품에 믿음과 사랑의 몰약 향낭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기 시작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 분의 말씀과 인생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겠다고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이 여인은 사랑을 무척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발견하면 그 분을 잘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주님의 장엄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동시에 지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